강진군, 전남 인구정책 우수 시·군 '우수상' 수상

반값여행·강진품애 ON 군민 플랫폼으로 생활인구 기반 성장모델 구축

강진군이 전라남도가 실시한 2025년 인구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한 대표적 사례로, 강진군이 제시한 새로운 인구정책 모델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결과이다.

강진군은 이번 평가에서 소비와 관광을 연결한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과, 디지털 기반의 생활인구 플랫폼 '강진품애 ON 군민'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두 정책은 단순한 전입 유도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관계 형성, 체류 유도, 지역 소비, 경제 순환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며 장기적 생활인구 확대 가능성을 입증했다.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은 여행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소비연계형 정책이다. 지역화폐로 지급해 예산의 외부 유출을 막고, 소비를 지역 내에 정착시키는 구조를 통해 관광, 외식, 특산품 구매, 전통시장 이용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유도했다.

2024년 강진을 찾은 관광객은 282만 명으로 전년 대비 43만 명 증가했고, 전체 방문인구는 709만 명에 달했다. 지역화폐 사용률은 71% 상승했으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4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정책은 현재 타 지자체로 확산 중이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되는 대표 사례가 되고 있다.

'강진품애 ON 군민'은 주소지 이전 없이도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강진과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생활인구 플랫폼이다. 가입자는 온라인 군민증을 통해 관광지

할인, 마일리지 적립, 지역 쇼핑몰 결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플랫폼 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군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2025년 10월 기준으로는 1만 4천 명을 넘어섰다. 단순 전입 중심에서 벗어나 머무르고 소비하는 관계형 인구를 확대해 나가는 모델로 정책 전환의 모범이 되었다는 평가다.

강진/손경설 기자

순천 송광사 침계루,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불교문화의 중심지, 학술적·예술적 가치 인정받아

순천시는 송광사의 대표 건축물인 '순천 송광사 침계루(枕溪樓)'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개울을 베고 누운 다락'이라는 뜻을 가진 침계루는 조계산 계곡을 끼고 세워진 정면 7칸, 측면 3칸 규모의 2층 사찰 누각이다. 승려들의 교육 공간인 강원의 강당이자, 대규모 불교 행사와 집회가 열리는 장소로 활용되어왔다.

규모 면에서도 "위층에는 천 명이 앉을 수 있고, 아래층에는 몇 장(丈)의 깃발도 세울 수 있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보물로 지정된 고창 선운사 '만세루'에 이어 국내 사찰 누각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갖추고 있다.

또 역사적으로도 고려 말에 창건되어 14세기 목은 이색의 시 「제침계루(題枕溪樓)」가 전할 정도로 송광사를 대표하는 유서 깊은 건물이다. 1688년(숙종 14) 현익과 해문 두 스님이 중건한 이후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 또한 높다.

특히 일반적인 사찰 누각이 대웅전 앞에 자리해 대중법회 장소로 사용한 것과 달리, 침계루는 승보사찰인 특성을 반영해 승려들의 수행공간인 강원 안 요사채(법성료)와 나란히 배치해 승려들의 수행 동선을 편리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조계산 계곡과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 덕분에 예부터 시인과 묵객들이 즐겨 찾는 불교문학의 중심지였다. 아름다운 경치에 심취한 이색은 "침계루에 오르면 인간 만사를 잊는다"고 했고, 조선 후기 고승 묵암 최눌은 "천년의 송광사 만고의 침계루"라 칭송하기도 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청렴노력도 분야 2등급 성과 '결실'

함평군, 청렴 행정 전환점 마련… 종합청렴도 2단계 상승

전남 함평군이 청렴 시책을 전방위적으로 재정비한 결과,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며 청렴 선도 지자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함평군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2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을 기록하며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했다"며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가 2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평가 등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해 총 721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평과 결과 함평군의 종합청렴도는 78.1점으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평균보다 2.6점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청렴도 개선 성과를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기관의 부패 취약 요인 분석과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분야에서는 88.8점을 획득해 평균 대비 8.9점을 웃돌며 제도적 개선을 통한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함평군은 지난해 청렴도 부진을 계기로 올해 '청렴 SOS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며 ▲부패신고센터 도입 ▲청렴해피콜 운영 ▲청렴리더챌린지 전개 등 청렴 정책의 기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 정착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 같은 전방위적 청렴 시책 추진이 평가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함평군은 2025년 전라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청렴 시책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종합청렴도 상승과 맞물려 청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청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공직자와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실천 노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소통 중심의 청렴 행정을 강화해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담양군, 고향사랑기부하고 풍성한 기부 혜택 챙겨보세요!

담양산타의 선물 및 소아청소년과 지정 기부 이벤트 등 혜택 풍성

담양군이 '제7회 담양산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연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군은 지난 22일부터 담양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참여자 선착순 70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 원권'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이벤트는 조건 충족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되며, 당첨자에게는 이벤트 종료 후 개별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담양군에서는 선착순 이벤트 외에도 다양한 기부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오는 28일까지 10만 원 이상 기부자 중 100명을 무작위 추첨해 담양한우, 쌀 등 지역 특산품을 증정하는 '담양산타의 선물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사업 모금 개시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지정 기부 참여자 5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기부자는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은 물론, 진행 중인 이벤트 당첨을 통해 추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기회를 얻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산타축제의 성공과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담양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소중한 기부금이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옥 기자

진도군, 진도 공용터미널 '새 단장' 완료

저상형 전기버스 도입으로 교통 복지 향상

진도군이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진도 공용터미널' 시설개선 공사가 12월에 완료됐다.

진도군은 지난해 7월부터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시행하며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는데, 공용터미널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진도군은 공용터미널 건물의 외벽을 보강하고, 오래된 창호를 교체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천장에 사용된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고 냉난방이 가능한 냉온풍기를 설치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한편, 진도여객은 '저상형 전기버스' 1대를 도입해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저상형 전기버스'는 일반 이용객은 물론 노인과 교통약자의 승하차 편의를 높인 차량으로, 진도군은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저상형 전기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마저 군민의 삶의 질이라는 생각으로 시설 개선에 힘썼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이 더 편안해질 때까지 교통 복지와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영광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완료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10월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건조벼 매입을 완료하여 2025년 공공비축미 10,154톤 물량을 전량 매입하였다고 밝혔다.

2025년산 벼 매입실적량은 산물벼 428톤, 건조벼 7,746톤, 친환경벼 652톤, 가루쌀 1,300톤, 피해벼 31톤이다. 출하 농가에는 중간 정산금(40,000원/포대)을 지급하였고, 최종 정산금은 12월 말경에 평균 산지 쌀값 확정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매입물량 중에 친환경벼는 전년 344톤에서 652톤으로, 가루쌀벼는 전년 563톤에서 1,300톤으로 전년 대비 매입량이 각각 190%, 231% 상승하였다. 이는 친환경 및 가루쌀 벼 농가의 지속적인 경영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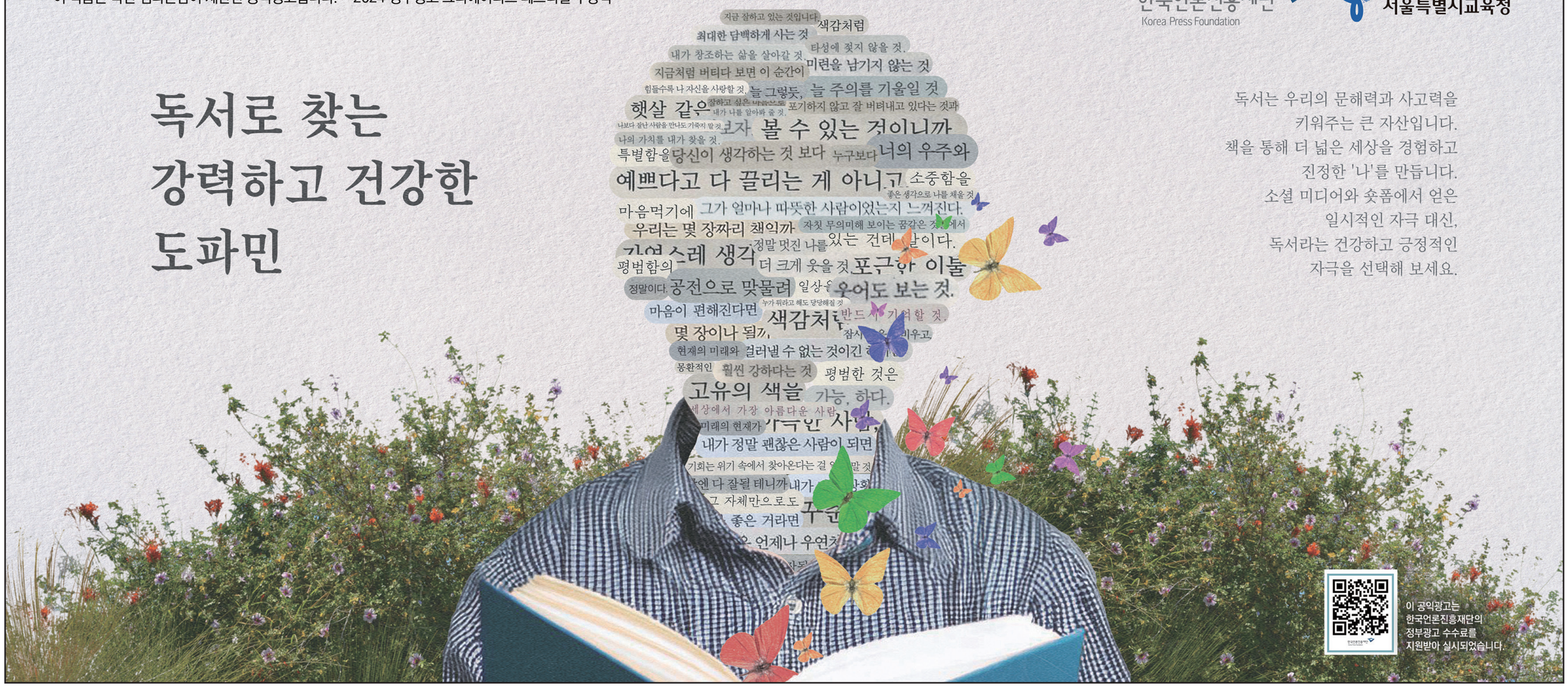
아울러, 영광군은 깨씨무늬병·수발아 등 읍면에 접수된 피해 벼 매입 희망 물량 31톤에 대해서도 전량 매입하여 피해 벼 농가 경영 안정의 신속한 회복에 총력을 다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상기후와 병충해로 인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품질 영광쌀을 생산하고 공 공미축미곡 매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농업인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